대학환경과 음주문제 요약문

장승옥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매년 신학기가 되면 알코올로 인한 대학생의 사건 사고가 연례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만 대학생의 음주폐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대학생 음주폐해는 일부의 문제음주대학생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교적으로 음주를 하는 대학생, 술을 마시지 않는 대학생은 물론 그들의 가족,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대학생의 건강행동 학습은 곧 미래의 건강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의 학교행사나 캠퍼스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당국의 조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은 한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의 음주문제에 관한 관심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대학생의 음주폐해는 종류가 다양하며 폐해가 심각하지만 다른 문제에 비해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첫째, 대학교의 음주문제예방대책에 관한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외국의 대학음주정책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음주의 폐해와 음주문제 요인

대학생 음주로 인한 폐해는 첫째 음주자 자신이 경험하는 성적부진, 기억상실(blackout), 사고나 사망, 급·만성질환, 예상치 못한 성적 접촉, 자살, 음주운전 , 법규위반행동, 운동능력상실 등과, 둘째,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산상의 손실, 대인간의 폭력, 성폭력 가해, 분노표출로 인한 싸움과 소란 등의 음주폐해, 그리고, 음주 학생에 의한 기밀파손, 학생음주와 관련된 사고에서 비롯되는 학교 이미지 손상, 기밀파손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과 시간소모로 인한 폐해 및 교내행사로 인해 음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에 법적 책임등의 학교조직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대학생의 음주장소나 시간등의 접근성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술집밀도(drinking density)와 음주소비, 폭력 및 범죄, 건강폐해는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알코올 이용가능성 및 술값등의 사회문화적 정책도 대학생의 과음정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음주허용연령의 시행, 과음자에게는 술을 더 이상 팔 수 없는(server liability) 법 규정 시행, 음주운전단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대학생의 음주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소비나 과음경험에서 낮았다. 또한 대학당국이 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음주소비가 적다

3. 연구방법

대학교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음주문제 인식과 음주관련 환경 및 대응노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탐색하기 위해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4년제 대학 교의 학생과장 또는 해당 대학의 학생관련 정책에 대하여 익숙한 학생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105개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각 대학 음주실태 및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주문제 예방 대책에 대한 정책 및 활동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SPSSwin 1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 지난 3년간 학교 내에서 음주폐해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학교가 59개(76.6%)였다. 대학생 음주문제에 대한 총(학)장 관심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61.5%를 차지하였고, 이중, 12.5%는 총(학)장이 학생들의 음주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차원에서의 대책은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마련', '학교 조직차원 대책(교칙강화) 마련',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대책 마련', 의 순으로 나타나 개인수준의 대책이 선호되었다.
- 응답한 대학교 중, 43.8%의 학교에서 지난 1년간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 음주문제예방활동을 실시한 적이 있는 대학교는 응답 학교의 47.6%로 나타났다. 음주문제관련교칙이 있는 대학교는 전체의 40.0%에 불과하였으며, 교칙에 의거 처벌받은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대

학교는 전체 응답자의 14.2%에 불과하였다.

- 대학교의 공식적인 매체인 경우, 즉 학교신문, 방송,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주류광고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었으나 학교 행사 시에는 21.0%, 학교행사를 위한 출판물(팜플렛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경우는 41.0%로 많은 편이었다. 70%이상의 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km내에 술집 밀집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서 음주대안활동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농구/축구/족구를 할 수 있는 시설들로 거의 대부분(96.0%)의 응답 대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육관 시설 89%, 비디오/오디오실 88.5%, 테니스장 83.8%, 공연장 78%, 커피샵 56%의 순서로 나타났다.
- 음주폐해예방활동은 국공립이 사립보다, 남여공학이 여대보다, 종합대학이 단과대학보다, 비선교대학이 선교대학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대도시에 있는 대학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위치한 대학에서 규모가 클수록, 총(학)장의 음주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음주폐해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 각종 학교행사에 주류회사의 지원이 있을수록 음주폐해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위한 시설이용이 용이할수록 음주폐해 발생 전체 건수와 사고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5. 결론: 요약 및 제언

대학의 음주로 인한 폐해는 다양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쥬류회사로부터의 지원이나 규정의 부재와 같이 음주접근성이 높은 환경일수록 음주폐해의 발생 가능성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음주관련 폐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대학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음주규제의 강화, 음주대안활동제시, 책임감있는 음주서비스 제공전략(RBS), 주류산업의 홍보 제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 금주기숙사와 동아리조직의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환경적 변화노력은 새로운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이나 음주운전관련법과 같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알코올중독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보살필 것인가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개인 및 집단의 교육적 개입 과 같은 다른 접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